

##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18년 11월 11일 (둘째 주일)

성경본문 : 행22장 1-21절

설교제목 :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II”

그리스도인이려면, 누구에게나 간증이 있습니다. 그러면, 간증있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만남으로 인해 어떻게 변하였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안토니아 요새로 이동하는 와중에 말할 틈을 얻어서, 유대인들에게 공개적으로 변명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했던, 변명은 자신에 대한 그리고 그리스도교에 대한 변증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변증이란 한마디로 자신의 간증이었습니다. 바울의 간증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과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삶이 변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3-5절은 바울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으로, 경제와 교육의 대도시였던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3-4절) 바울이 비록 다소에서 태어났다고 하지만, 그가 자란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대략 13세 혹은 14세에 유학을 온 것으로 추측되는데,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혹독하고, 엄격하게 율법을 교육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기 이전에 사회적, 신분적, 학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이력에 만족하고, 자부심을 갖고 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을 이러한 이력을 기준삼아 살아갔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와 상관없이 결박하여 옥에 넘겨주었습니다. 사울은 예루살렘로부터 213km 떨어진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 필요한 공문을 대제사장과 장로들로부터 받았습니다.(5절) 바울은 예수 만나기 이전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이전까지 자신이 조금도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잘못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커녕, 사울은 잘 산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울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 만나기 이전까지, 예수님을 모르며 살면서도, 추호도 잘못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혹시, 사울처럼 예수의 사람들을 저주하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바울이 다메섹에 거의 이르렀을 때에, 오정쯤 되어, 오정은 하루 중에 가장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시간인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사울을 둘러 비쳤습니다. 이 빛은 하루에 가장 강렬한 햇빛보다 더 찬란한 신적인 빛이었습니다.(6-8절) 이 빛 앞에서 사울을 땅에 거꾸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두 번 반복해서 부르시는 것은 연민을 품은 애정이 가득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울을 그 강렬한 신적인 빛 너머에 계신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 누구시나이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당대 예수란 이름이 흔했기에 예수님은 자신이 나사렛 출신의 예수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사울은 생전에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울을 향해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고난받을 때, 그들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그 고난에 동참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예수께서 세상 끝 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다메섹 도상 중에 주권적으로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이란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죄인된 우리들을 향해 하늘로부터 구원의 빛이 비추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은혜이자, 선물입니다. 사울은 주님을 향해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라고 물었습니다.(10-11절) 이 질문은 예수님을 만난 자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자는 반드시 삶의 질문이 달라집니다. 그 전까지, **내가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의 목표 나의 꿈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질문이 바뀝니다. 주님은 내가 무엇이 되길 원하는가? 주님은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가? 주님이 나를 향한 목표와 꿈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다면, 바울을 향한 주님의 소원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을 향한 주님의 소원은 바울이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이 보고 들은 것에 대하여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15절) 더불어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21절) 바울을 향한 주님의 소원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갖고 계시는 보편적이고, 개별적인 소원 두 가지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보편적 소원은 우리가 당신의 증인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소원은 우리 각자에게만, 우리 각자의 삶에 주신 소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주님의 소원에 다라, 죽기까지 평생 주님의 증언자로, 이방인의 사도로 살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이 포기한 인생도, 실패자도, 범죄자도, 새롭게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변화란 삶의 자리가 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삶의 의미와 목적과 시각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간증있는 신앙이 됩니다. 이 간증은 과거형만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입니다. 다시 말해서, 간증은 우리가 주님 만나서, 내 과거의 삶이 변화된 이야기일뿐 아니라, 변화되고 있는 현재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간증있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 매일 친밀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매일 만나 교제하여야, 간증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항상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계3:20)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문밖에 서서, 계속해서 두드립니다. **문밖에 서서 계시다**는 것은 주님과 교제하지 않는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혹시 이 모습이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닙니까? 주님이 문을 계속 두드리시는데, 왜 우리가 그 소리를 못 듣습니까? 너무 세상에 분주하기 때문이요, 세상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인 멈춤이 필요한데, 그 멈춤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의도적인 멈춤이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 ※.말씀 살펴보기

- 1)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 2) 바울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 3)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 ※.말씀 나누며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예수님 믿기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